세계 여자골프 스타들 속속 입국…"반갑습니다"

오초아

크리스티 커

수잔 페터슨

박세리

김미현

이지영

한국 자매들 "오초아 독주 막아라"

19일부터 LPGA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개막

19일부터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 골프장(파72·6천381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에 출전하려고 1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코리안 시스터스'는 한 목소리로 "한국 선수들의 좋은 성적을 기대해달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맏언니 격인 박세리는 "팬들이 바라는 것보다 올해 한국 선수들 승수가 적긴 하지만 선수들 기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져 해마다 어려워 지는 것 같다"고 분석한 뒤 "하지만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창설된 이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박세리는 "한국 선수들 각오가 아무래도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라 남다르다. 우승이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선수가 우승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05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이지영(22·하이마트)은 정상 탈환에 의욕을 내비쳤다. 이지영은 "이 대회로 인해 미국에 진출하게 돼 꼭 다시 우승을 해 2005년이 '행운'이 아니었다고 보여주고 싶다. 아직 미국에서 우승을 못 해봐 아쉽지만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내가 또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박세리와 함께 '코리안 시스터스' 쌍벽을 이루는 김미현(30·KTF)은 "지난 주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고 와 전체적인 샷 감각이 괜찮은 편이다.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못 냈었는데 올해 날씨가 안 춥고 운도 좀 따라준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의 우승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승을 거두고 있는 오초아는 "내가 멕시코에서 치면 편하듯이 한국 선수들이 유리한 점이 있다. 이 대회는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이 우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승수를 추가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나는 준비돼 있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2002년 창설된 이래 한국 선수들이 5년 내리 우승했던 이 대회가 그 전통을 이어갈지 아니면 외국 선수에게 우승컵이 돌아가게 될 지 흥미진진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주영 '부활포' 쏜다

오늘 올림픽 지역예선 시리아전서

8개월 부상 공백 깨고 맹활약 기대

8개월 만에 올림픽 축구대표팀 경기를 앞둔 '골잡이' 박주영(22서울)이 씁쓸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시리아를 상대로 '부활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17일(이하 한국시간) 밤 9시 시리아 다마스쿠스 알 압바세얀 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4차전 경기에 나선다.

시원한 3연승으로 베이징행 직행티켓에 성큼 다가선 박성화호는 시리아전을 앞두고 발등 부상에서 벗어나 대표팀에 복귀한 박주영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월 예멘과 2차 예선 1차전에서 '배치기 퇴장'을 당한 이후 부상까지 겹쳐 8개월 가까이 대표팀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박주영은 시리아전을 통해 '부상 탈출'을 선언하겠다는 각오다.

그에게 이번 시리아전은 남다른 감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오랜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누비게 된 첫 상대가 청소년(U-20) 대표팀 시절 연속골 행진에 마침표를 찍게 만들었던 시리아이기 때문이다.

박주영은 2004년 10월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일본과 준결승을 시작으로 2005년 1월 카타르대회 결승까지 무려 6경기 연속으로 해트트릭을 포함해 총 12골을 터트리며 '박주영시대'를 활짝 열었다.

하지만 연속골 행진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05년 2월 1일 시리아와 치른 청소년대표팀 평가전이었다.

박주영은 신영록(수원), 김승용(광주)과 함께 7경기 연속골 도전에 나섰지만 90분 동안 골 맛을 보지 못하면서 연속골 행진을 멈추고 말았다.

그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나고 박주영은 우연히도 자신의 연속골 행진이 중단됐던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포를 터트릴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

처진 스트라이커로 나서게 될 박주영의 골 사냥에는 '찰떡 궁합' 김승용이 함께 한다.

더불어 이근호(대구)와 이상호(울산)를 좌우 날개에 배치하고, 중앙 미드필더에 백지훈(수원)과 오장은(울산)을 '더블 볼란테'로 시켰다.

하지만 박성화 감독은 일본과 평가전에서 무려 3골을 헌납하며 조직력에 문제점을 드러냈던 포백(4-back) 라인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주영

■ 시리아 어떤 팀? FIFA 랭킹 123위… 알 이브라힘 '경계 1호'

시리아 올림픽축구대표팀의 안와르 후미(이라크) 감독은 지난달 12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에서 0-1로 패한 뒤 자신있게 한 마디 던졌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한국이 오늘처럼 한다면 우리 홈에서는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이다" 물론 '박성화호'로서는 원정경기라 부담이 크지만 그래도 객관적 전력에서 시리아는 한국에 한 수 아래다. 시리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123위(한국 50위)로 B조에서 가장 처진다.

최종예선에서도 현재 1무2패(1득점 3실점)로 꼴찌다.

다만 공격은 무딘 편이나 말레이시아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모하나드 알 이브라힘은 경계가 필요하다.

알 이브라힘은 지난해 전북 현대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 마지막 상대였던 알 카라마(시리아)의 주전 공격수로서, 결승 2차전에서 득점을 올리기도 했다.

2차 예선 홍콩전에서만 세 골을 넣는 등 활약을 펼쳤지만 부상으로 한국과 3차전에는 출전하지 못했던 주장 마지드 알 하지도 가세할 전망이다.

시리아의 올림픽 본선 출전은 1980년 모스크바 대회(1무2패로 조별리그 통과 실패)가 유일하다. A대표팀끼리는 역대 네 차례 맞붙어 한국이 2승1무1패로 앞서 있다.

2005년 초 시리아에서 가진 20세 이하(U20) 대표팀 간 두 차례 평가전에서는 모두 0-0으로 비겼다. 박주영(서울), 김승용(광주) 등 지금은 올림픽대표팀의 주축이 된 당시 U20 대표 선수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박성화 감독이다.

위성미 에이전트 "미셸 담당 그만 두겠다"

프로에 데뷔한 뒤 최악의 시즌을 보낸 재미골퍼 위성미(18·나이키골프)의 에이전트 그렉 네어드가 1년만에 손을 뗐다고 16일 AP통신이 전했다.

네어드는 15일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미셸 위가 가까스로 꼴찌를 면하는 등 형편없는 성적으로 대회를 마친 뒤 하루만에 작년 10월 이후 맡아왔던 '미셸 담당' 에이전트 업무를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이키에서 14년동안 일하며 한때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담당했던 네어드는 AP에 보낸 이메일에서 "내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세계 정상급 선수와 같이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윌리엄 모리츠사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셸 위는 올해 여덟차례 대회에 출전해 평균 76.7타에 한번도 60대 타수를 기록하지 못했고 세차례 컷을 통과하는 데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도지사배 국제친선축구 강진서 개막

7개국 참가…열전 7일

한국중등축구연맹이 주최하고 강진군이 주관하는 제2회 한국중등(U-15)축구연맹회장배 겸 전라남도지사배 국제친선축구대회가 16일 청자골 강진축구전용구장에서 개막됐다.〈사진〉

이날 오후 2시 30분 한국의 청룡 - 브라질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강진의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브라질, 프랑스, 일본, 중국, 북한, 동티모르, 한국(청룡, 화랑) 등 7개국 8개팀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U-15 국제친선축구대회는 지난해 6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황주홍 강진군수, 김석한 한국중학교축구연맹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갖고 지난해부터 강진군에서 개최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kwangju.co.kr